

# 주체성 인식으로서의 여성시 교육 방법

오정훈 경상대학교 교육학 박사, 대아고 교사(vivasj@dreamwiz.com)



- I. 여성시 교육의 의의
- II. 여성시 교육의 요소
- III. 여성시 교육의 실제
- IV. 마무리

## I. 여성시 교육의 의의

여성은 타자성을 탈출하고자 한다.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는 대등한 자격으로서의 성(性)의 분화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관습적이며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어 온 금기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의 페미니즘<sup>1</sup> 지향성은, 주체적 역량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 삶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타자<sup>2</sup>로서의 공간에서 벗어나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바람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1 김성곤(2005), 『21세기 문예이론』, 문학사상, p. 95.

2 본고에서는 '타자성'을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타고난 본성으로서의 자기 긍정과 애착을 향유하지 못하고, 여성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펼치지 못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가치체계와는 이질적인 상황 속에서 차별화를 겪는 여성적 삶을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타자성'과 상반되는 속성으로서, 타자적 모순성을 극복하고 성적 불평등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자기실현을 성취한 존재로서의 여성적 자기 인식을 '주체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남성 중심의 권력과 지배 구조 속에서 사회 문화적 관습으로 규범화<sup>3</sup>되어 온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단순히 여성들의 자기 인식과 비판적 외침만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 봉건 사회에서는 부계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혈족 개념과 신분을 유지하려는 계급적 관념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가부장적 체제를 존속시키고자 했다. 또한, 근대 산업 사회 이후에는 평등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도 임금 노동자로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남성의 역할만 중요시될 뿐, 여성은 실질적 차원의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가사 노동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족의 '지위 재생산'<sup>4</sup>에만 예측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에게는 희생적 모성성만을 강요해 왔을 뿐, 그들의 주체적 여성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묵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복종', '충실', '정숙'이라는 타자성을 넘어, 여성 자신의 생명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함으로써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sup>5</sup>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삶과 감정에 대한 관심과 조망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여성 자신들의 삶의 애환을 여성적 입장에서 작품화해 낸 여성시를 시교육의 제재로 다루는 것은, 남성적의 관점으로 편향된 문학 감상의 틀을 확장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루어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여성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미약한 초자아로 인해 남성에 대한 선망과 증오를 동시에 가지는 남근선망(penis-envy)<sup>6</sup>적 자아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남성은 성장 과정 중에 여성이 남근이 없는 것을 인식

3 백은주(2007), 「1990년대 한국 여성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으로서의 성」,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p. 278.

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2002), 『한국문학과 여성』, 아세아문화사, pp. 39~50.

5 명혜영(2010), 『한일 근대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변용』, 제이앤씨, p. 104.

6 박아청(2003), 『정체감 연구의 전망과 과제』, 학지사, p. 341.

하게 되고 그로부터 거세의 위협을 느끼는 거세 콤플렉스<sup>7</sup>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거세 콤플렉스에 의해 남성은 여성을 배척하고 남성 중심적 인식 체계에 편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도 남근 부재의 자신을 혐오함으로써 남성을 동경하는 심리적 좌절감을 겪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남성 우월적 입지가 생애적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정당화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뒷받침하는 심리 철학적 논리는 전통적 관습과 결부되어 여성의 소외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인식의 틀로서 작용하게 되며, 여성은 결국 지배문화로부터 배제되어 그들만의 하위문화<sup>8</sup>에만 만족하는 주변인으로서의 삶에 고착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형성된 생득적인 생물학적 특징과 모순된 사회구조적 통념으로 인해, 사회 속에서 주체성을 가진 독립적 자아로 당당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억압적 현실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적 한계에서 느끼는 삶의 애환을 담은 여성문학은, 남성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삶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서 편협한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상 기존의 문학 담론은 남성 중심의 글쓰기와 비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지그리트 바이겔은 여성의 글쓰기를 숨겨진 여성을 찾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문학적 생산에 참여하는 의의와 영역함이 문학 담론에 미치는 영향력<sup>9</sup>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여성시에 주목하는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착취를 인식시킴으로써, 그동안 간과해 왔던 주체성 상실의 여성적 삶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남성의 자기반성은 물론 여성의 잃어버린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서

7 권택영(1998), 『프로이트의 성과 권력』, 문예출판사, p. 57.

8 권택영(1990), 『후기구조주의 문학론』, 민음사, p.120.

9 문학이론연구회(1994), 『새로운 문학 이론의 흐름』, 문학과지성사, p. 290.

의 인권회복을 위한 각성의 장이 되리라 본다. 남성 일변도의 가치관과 그것이 담겨 있는 문학작품, 이를 여성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문제점을 부각시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학생들이 경험함으로써, 삶을 대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의 문학적 경험은 물론, 진정한 인간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포용과 공존의 참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영미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중심적 정전에 대응하는 여성 중심적 정전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이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제대로 알아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프랑스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억압은 정치·경제·사회 구조적 차원의 외형 조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조정<sup>10</sup>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언어는 남성적 가치 체계를 옹호하고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간의 사회화는 언어를 매개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보유한 남성에게 의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남성적 가치 체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언어에 의한 주체 형성은 결국 남성 주위에 대한 종속적 기여로 본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언어적 관행을 타파하고 여성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 언어로부터의 탈출과 전복을 시도하는 여성문학의 한 갈래인 여성시에 주목함으로써, 남성과 차별화되는 문학적 인식 태도는 물론, 문제의식과 그를 탐색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문학에 담아 유형화하는 여성만의 고유한 표현방법 등을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여성시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태도는, 여성의 삶을 이해<sup>11</sup>하는 한 방식이 될 것이며, 남성 중심의 편향된 문학과 감상 태도에서 벗어나, 여성의 삶과 그 결과물로서의 문학 작품을 교육의 내용과 대상으로 설정

10 유이는 자아와 타자가 동일시되는 ‘거울단계’에서, 언어를 습득하면서 남성 중심의 질서 체계가 확립된 ‘상상계’로 진입한다고 보며, 인간 주체는 언어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인식한다. 김춘섭 외(2004), 『문학이론의 경계와 지평』, 한국문화사, pp. 360~361.

11 구명숙(2005), 「여성주의 시의 교육」, 『한국사상과문화』 제27호, 한국사상문화학회, p. 10.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며, 여성을 삶의 중심, 문학의 중심으로 편입시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성과 감성,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다양성과 총체성을 인정하는 안목에서 사태를 바라보지 못했던 웅졸한 태도에서 벗어나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여성성을 억압하는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 모순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sup>12</sup>하고, 비판을 넘어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공존과 화합을 위한 가치 실현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결국, 여성시 교육은 비판과 각성을 통해 조화를 지향하는 삶에 대한 통찰, 인식의 확장, 문학적 체험의 다변화라고 할 수 있다.

## II. 여성시 교육의 요소

여성적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여성문학의 독자적 특성을 경험하기 위해 여성시를 교육하고자 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을 교육 요소로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교육요소는 무엇을 시교육의 핵심내용으로 추출해 제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기에, 무엇보다 여성시만의 독자적인 형식과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시는 오랜 세월 동안 고착화되어 온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억압된 삶을 비판하고, 여성의 독자적인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문학 정신을 토대로 남성들의 글쓰기 방식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문학 양식이다. 따라서 여성시가 남성에 의해 창작되는 기존의 시와 차별화하기 위해 ‘타자성’, ‘주

12 정영자(2003), 「1960년대 한국여성시 문학사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2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 65; 태혜숙(2006),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학과학사, p. 181.

체성', '재설정'을 핵심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타자성'으로서의 소외적 여성성을 통해 남성 권위에 의한 여성 억압의 실태를 살피고, 여성들의 인식 전환으로서의 자의식을 통한 '주체성' 인식을 토대로 현실 개혁을 위한 가능성을 따져 보며, 끝으로 탈중심 지향을 통한 자리 찾기를 통해 관계의 '재설정'을 교육요소로 설정하고 이를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 장에서 제시한 세 편의 작품은, 여성의 '타자적 현실'과 상황 극복을 위한 '주체적 인식의 자발성', 그리고 가치의 재설정을 위한 '탈중심 지향성'을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기에 논의의 편의상 인용하기로 한다.

## 1. 타자성으로서의 소외적 여성성

여성시 교육을 위해 타자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적 제재가 되는 현실적 모순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성 작가로 하여금 어떠한 정당한 문학관을 정립시키는 데 일조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보부아르는 여성을 타자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긍정적 의미를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규범이나 인간성 일반을 대표하는 남성에게 예측되는 존재<sup>13</sup>로 파악한다.

절간을 지으러, 정자를 지으러,  
나라님 연희마당 누각을 지으러  
충렬왕조 남정네들 노역에 나간 뒤  
모화관 조공이며 식솔들 풀칠이란  
고려여자 살가죽 벗기는 짐이라지만

13 진은진(2008),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연구』, 보고서, pp. 211~212; 여성문화이론연구소(2003),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p. 192; 민족문화사연구소(2004),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p. 413.



목숨 부지하기까진 여자도 사람인지라  
 석 달째 노역에 동원된 남편이  
 이웃동기 밥동냥에 의지하고 있다 하여  
 소첩 백방으로 길을 찾다가  
 겨우 한끼 밥잔치 마련하여 갔더이다  
 놀란 남편은 대뜸 옥박질렀지요  
 가세가 빈한하여 도리없는 노릇인즉  
 뉘에 몸을 팔았는가 혹여 도둑질인가  
 꿈엔들 여보, 막말은 하지 마오  
 가난도 절통한데 누구와 눈맞추며  
 천성에 없는 흑심 도둑질이 웬말이오  
 하나 남은 머리채를 잘라 팔았소이다  
 이 말에 올라가던 수저를 내려놓고  
 목메어 등돌리던 이웃동기들이시여  
 밤이 이슬토록 강둑을 걸을 때는  
 들 건너 창호지 불빛 아래 포효하는  
 다듬이소리로 울부짖었나이다  
 흥두깨소리로 울부짖었나이다  
 날 잡썬 날 잡썬  
 길쌈하는 여자들 뒤통수 내리치는  
 잉아 소리, 베틀 소리로 부르짖었나이다  
 즘은 가람 걸린 달하  
 서방정토 관음보살님진 뵈옵거든  
 시방세계 가위눌린 여자생애  
 천지개벽 원왕생 아뢰주오

- 고정희, 「즈문 가람 걸린 달하」 전문.

위와 같은 여성시를 통해 현실 상황 속에서의 타자성을 교육하기 위해

서는, 타자성의 속성과 그를 유발시키는 제반 사항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후, 타자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그를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의 여성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요소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타자는 주체의 대척점에서 사회 형성과 유지를 위한 기득권을 부여 받지 못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타자의 속성은 주체와의 ‘관계성’ 측면에서 볼 때 단절과 배척, 종속적 성향을 띠게 되며, 사회 구조 속에서 타자에게 부여되는 ‘역할성’과 관련해서는 주변적인 배타성에 한정된다. 권위적 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관계적 종속성과 배타적 역할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타자로 한정시키는 주체의 인식과 타자로서의 지위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느끼는 정서와 인식 태도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인식성’에 대한 사항도 타자성을 위한 교육요소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즈른 가람 걸린 달하」는 사회와의 조화, 이성과 전체성의 개념을 획득해 나가는 발전의 남성<sup>14</sup> 신화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읽힌다. ‘고려’, ‘충렬왕조’, ‘남정네’들의 자기 모순적 현실 속에서 한계를 보이는 남성 중심적 사회를 조롱하면서, 그 속에서 ‘머리채’를 팔면서까지 남성 중심 사회에 종속된 타자화된 여성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남성 주체와의 관계성 차원에서 작품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사회의 기득권과는 무관하게 ‘식솔들 풀칠’, ‘다듬이’, ‘홍두깨’, ‘길쌈’, ‘잉아’, ‘베틀’과 같은 탈중심적 상황<sup>15</sup>에 속박되어, ‘살가죽 벗’겨지는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의 단절과 소외만 강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에 의해 주어진 여성의 ‘역할’은 ‘창호지 불빛 아래’에 갇혀 ‘나라’

14 이정희(2003), 『여성의 글쓰기, 그 차이의 서사』, 예림기획, p. 133; 이상경(2002), 『한국 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p. 165.

15 김승희(2011), 「고정희 시의 카니발적 상상력과 다성적 발화의 양식」, 『비교한국학』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p. 11~12; 김문주(2011), 「고정희 시의 종교적 영성과 어머니 하느님」, 『비교한국학』 제1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 139; 이경수(2011), 「고정희 전기시에 나타난 숭고와 그 의미」, 『비교한국학』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 92.

일과는 무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일 뿐이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풀칠’이나 ‘한끼 밥잔치’와 같은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만 전념해야 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부정되고 남성과 대등한 역할이 소멸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초래하는 모순적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민생고도 해결하지 못해 ‘살가죽 벗기는 집’을 지고서 급기야 ‘머리채를 잘라 팔’아야만 하는 희생적 역할만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은 그들이 자초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외면한 채, 여성의 삶의 방식과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를 ‘몸을 팔’고 ‘도둑질’을 일삼는 비합리적이며 부도덕한 것이라 단정짓고, 일방적으로 ‘억박’지르고 비난해도 되는 비이성적 존재로 여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의 단절성, 역할의 수동성, 비이성적 인식성으로 규정되는 여성의 타자성으로 인해, 여성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속에서 ‘날 잡쉬’라는 자책만 존재할 뿐이다. 남성에 의해 강요되는 타자적 현실 속에서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도 실천적 개선의지도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달’과 ‘관음보살님’이라는 여성의 주체적 의지 이외의 초월적 대상에 대한 기대를 통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동성만 남게 된다.

타자성을 통한 여성시 교육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소로, 타자성을 표출하는 여성적 표현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남성 사회에서 소외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한 바탕 위에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독특한 표현방법상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적 글쓰기의 묘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를 표출하는 방법, 남성에 의해 강요되는 타자성을 문학 속에 반영하는 방법, 소재상의 특징이나 문체, 시어의 배열 방법과 어조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은 자신들의 한계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위상 확립과 극복의 가능성<sup>16)</sup>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

16 한국어문화연구소(2011), 『여성, 문학으로 소통하다』, 태학사, p. 22.

다. 이러한 차원에서 타자성을 다루는 여성 문학에서는 황폐화된 현실을 위로와 치유<sup>17)</sup>의 차원에서 돌아보려는 시도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장치들을 발견하게 된다. 위 작품의 경우, 생명의 성장이라는 원형적 의미를 갖는 ‘달’을 시적 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종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재생으로서의 죽음<sup>18)</sup>이라는 타자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적 공간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침묵에 굴복하지 않고, ‘창호지 불빛 아래’와 같은 여성만의 내밀한 공간을 설정해, 그 속에서 ‘다듬이, 홍두깨, 잉아, 베틀 소리’와 함께 내뿜는 그들의 애환을 여성들끼리 공유하고 달래고자 하는 사적인 의사소통<sup>19)</sup>을 표현상의 특징으로 한다.

## 2. 자의식을 통한 주체성 인식

여성문학은 억압받는 여성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과 단순한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페틸리는 여성문학의 기능으로, 남성적 관점이 초래하는 부당한 보편성의 파기와 여성적 주체성의 통용을 꼽는다. 길버트와 구버 역시 이러한 태도와 유사한 입장에서, 여성적인 것의 잊혀진 자리를 새로운 삶으로 채움으로써 통일성과 전체성<sup>20)</sup>을 산출해 내는 것이 여성문학의 의의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주체성이 여성의 자발적 인식에서 유발되는 것으로서, 여성에게 주어진 타자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시 교육에서 주체성을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체적 인식의 형성 과정과 그 결과적 의의에 대한 사항을

17 채연숙(2011), 「문화적 기억과 문학적 기억으로서의 여성시」, 『비교한국학』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 162; 팸 모리스, 강희원 옮김(1997),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p. 53.

18 이화여문학회(2001), 『우리 문학의 여성성·남성성』, 월인, pp. 31~32.

19 일레인 쇼월터, 신경숙 외 옮김(2006),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330.

20 레나 린트 호프, 이란표 옮김(1998), 『페미니즘 문학 이론』, 인간사랑, pp. 45~97.

교육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체적 인식은 모순적 현실로서의 여성적 타자성에 대한 파악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식적 차원에 해당하는 자성(自省)적 의지와 실천적 측면에서의 극복의지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즉, 여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깨달음으로서의 의식 전환과, 타자성을 극복하고 여성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전망<sup>21</sup>을 이루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여성문학에 내재된 여성적 권리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식의 확립 과정과, 그러한 인식이 구체적 상황 속에서 실천적으로 구현되어 가는 경로를 탐색해 나가는 것의 의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을 전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발생시킬 수 있는 상호간의 대립과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성별의 '차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등한 인권 주체로서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대안적 양성성(other bisexuality)'<sup>22</sup>의 가능성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잠들기 전에 하늘님  
내 몸의 먼지를  
清天의 눈물로 씻어 주세요  
오래된 어둠의 정액도 씻어 주시고  
한밤내 그냥 처녀로 두어 주세요  
아침이 되기 전에 하늘님  
내 어둠의 목숨에도  
한 차례 폭풍우를 주시어  
돌아오는 아침 최초의 햇빛 속에  
깨끗한 새순을 내밀었으면요

21 임영선(2010), 「한국 여성시 비교연구」, 『문명연지』 제25호, 한국문명학회, p.171; 위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옮김(2000),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p. 107.

22 토털 모이, 임옥희 외 옮김(1994),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p. 128.

위 작품을 통해 타자성을 극복하고 주체적 자기완성을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씻어 주세요’, ‘두어 주세요’, ‘내밀었으면요’, ‘뺨았으면요’와 같은 서술 형태를 통해 화자는 간절한 소망의 형태로 현실적 자기 모습에 대한 인식과 그 모습에서 발견한 부정적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기실현을 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주체적 인식이 전제된 작품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이면에 숨어 있는 주체적 인식의 성취 과정을 탐색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화자의 내면 의식의 성장 과정을 짐작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주체적 인식에 대한 단편적 사실 확인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공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 작품에 함축된 주체적 자아로 거듭나기 위한 인식의 흐름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발견 → 종교적 각성을 통한 거부와 소망 → 주체적 인식의 성취’로 정리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먼지’, ‘오래된 어둠의 정액’, ‘어둠의 목숨’으로 인식하고 있다. 화자 자신의 존재의 참모습을 정갈한 ‘몸’으로 설정하고 그를 더럽힌 대상으로 ‘먼지’를 상정함과 동시에, ‘먼지’는 화자를 오랜 세월 구속하고 억압하는 ‘정액’과 동일시한다. 즉, 남성의 이성 중심의 이원론적 가치관으로 인해 오랜 어둠의 속박에 갇혀 여성 자신의 몸을 부정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정액’을 부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남성’으로 인해 초래된 현재적 상황을 여성적 ‘목숨’의 ‘어둠’으로 규정하고 있다.

곧 ‘정액’은 ‘어둠’이며, 이러한 ‘정액’에 의해 지배받는 여성의 ‘목숨’ 또한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발견인 것이다. 남성의 속성을 ‘정액’으로 단정짓는 표현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여성적 언술에서 배제되

고 금기시 되었던 시어를 전면화시킴으로써 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풍자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성(性)과 관련된 단어를 노골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성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도록 교육<sup>23</sup>받은 과거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읽힌다.

화자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를 극복하고자 하는 가능성으로서의 인식적 성취는 ‘하늘님’, ‘청천’에서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드의, ‘정신에는 남녀 성별이 따로 없으며, 똑같은 존재인 인간은 남자나 여자로서가 아니라 영혼과 신의 아들로 완성되어야 한다.’<sup>24</sup>는 철학과 동일한 맥락이다. 기독교가 들어온 때부터 여성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여성운동이 질적으로 발전<sup>25</sup>하게 되었다는 여성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 위 작품에 드러난 각성의 계기는 종교를 통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눈물’과 ‘폭풍우’는 종교적 깨달음을 통해 확보한 부정적 현실 개선의 매개가 되며, 현실적 고뇌와 모순을 정화시킬 수 있는 성수(聖水)로서의 ‘눈물’과 ‘폭풍우’는, 여성적 몸 가치의 극단에 해당하는 ‘처녀’를 당당하게 긍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는 종교적 인식을 통한 자기 주체성에 대한 긍정이면서, 나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 우주 순화의 원리<sup>26</sup>를 깨닫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종교적 각성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주체성

23 정끝별(2001),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제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p. 312; 남민우(2001), 「여성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 『문학교육학』 제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p. 356.

24 차경아 외(2004), 『문학이 만든 여성 여성이 만든 문학』, 한국문화사, pp. 202~203; 김상환 외(2002), 『라캉의 재생산』, 창작과비평사, p. 579.

25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2006), 『탈식민의 역학』, 소명, p. 375; 줄리아 크리스테바 외, 김열규 외(1992),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p. 94.

26 남진숙(2010), 「몸을 통한 불교 에코페미니즘 시 읽기」, 『문학사학철학』 제23호, 한국불교사연구소, p. 33.

의 참모습은 어떻게 귀결되는가에 대한 살핍도 동반되어야 한다. 화자가 사고의 흐름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자신의 주체적 모습은, ‘아침 최초의 햇빛’ 속에서 ‘깨끗’하고도 ‘이쁘게’ 뺨어나가는 ‘새순’으로 드러난다. 즉,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획득하고자 하는 주체적 인식은 발전 가능성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성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청천의 눈물’, ‘폭풍우’를 매개로 ‘햇빛’과 함께 동화되는 ‘새순’으로 재탄생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은, 자연에 의해 자연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남성의 한계와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주체성을 성취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식’의 측면과 함께 교육요소로 고려해 볼만한 사항으로 ‘실천적 의지’에 관한 것이다. 주체성의 확립은 사고의 전환으로서의 의식적 충위와 현실의 모순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행위로서의 실천적 충위가 공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성의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자의식에, 권력과 쾌락 그리고 자유<sup>27</sup>에 대한 적극적인 향유가 동반되지 않으면 여성의 주체성은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크리스테바의 언급처럼, 주변적 위치로 인해 언제나 변방 밖의 혼돈으로 떨어지거나 혼돈과 결합<sup>28</sup>할 수밖에 없는 여성적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의지를 통한 주체성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 3. 탈중심 지향을 통한 자리 찾기

여성시 교육을 위해 ‘재설정 가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타자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자신의 ‘주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여성주의 문학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상으로서의 가치문제에 대해서도 천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상황 속에서 여성이 주체성의

27 한스 요아힘 마츠, 이미옥 옮김(2004), 『릴리스 콤플렉스』, 참술, p. 24.

28 최동현 외(1996), 『페미니즘 문학론』, 한국문화사, p. 18; 이소영 외(1995),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p. 273.



로 확립한 가치와 신념이 남성을 배제한 여성만의 독자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남성과 여성의 공존을 위한 사회구조의 재설정인지에 관한 탐색이 동반되어야 한다. 여성의 주체성은 어떤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을 타자화하는 현실의 모순을 넘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가치의 청사진이 타당성과 수용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가에 대한 실패 없이는, 여성문학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여성이 재설정하려는 ‘자리 찾기’로서의 ‘가치성’이 갖는 ‘본질로서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문학작품 속에 ‘형상화시킨 방법’상의 특징,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여성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실현 가능성’을 학생들로 하여금 살피게 하는 것이 교육요소로 설정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이 제시하는 가치의 본질은 사상과 철학의 문제이며, 가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여성적 가치를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의 재편성을 위해 받아들이는 전제하에 그 적합성을 따져본다는 측면과 관련되는 것이다.

가치의 본질을 탐색하는 작업은, 여성시가 절대적인 주체를 부정적으로 해체하는 크리스테바의 관점을 취하는지, 식수가 강조하듯이 영구적으로 변형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 있는 ‘진행 중인 주체’<sup>29</sup>를 옹호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성과 대등한 자격으로서의 차별화된 주체 형성을 추구하는 한계를 넘어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공생과 공존의 가치를 표방하는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대승적 입장에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여성적 가치는, ‘타자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남성적 욕망과 달리, 타자의 자리를 위해 물러서는 자아의 욕망을 여성적’<sup>30</sup>인 것으로 규정한 레비나스의 입장과 유사점을 보인다. 이는 여성성 안에 여성 이외의 남성을 위한

29 한국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2000),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p. 158.

30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1996),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p. 110.

타자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체적 해방’<sup>31</sup>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여성적 가치의 참모습임을 역설한 것이다.

양수 속에서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길을 잃었다  
밥을 떠 넣고 아기를 넣고 한숨을 쉬고  
시를 쓰고 버스를 기다린 것도 양수 속에서였다  
버스는 나를 멀리 데려가곤 했지만  
버스 차장에 맺힌 빗방울, 나를 적신  
모든 물이 양수였다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자궁 속에서 몸을 씻는 사람들  
자궁 속에서 시체를 태우는 사람들  
흰 옷 입은 그들 곁에 기웃거리는 개들

장작 값이 모자란 시체는 반쯤 태워져  
개들의 차지가 되거나 나무토막에 묶여 떠돌았다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하면서 더 깊은 강으로, 자신에게로  
흘러들었다 기슭 저편에서 떠오른 해는  
자궁 속을 붉게 비추어 주었지만  
배들은 기슭 저편에 닿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텃밭과도 같은 지상의 길들 어디선가 끊어지고

양수는 점점 핏빛이 되어갔다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다  
시체 태우는 연기 자궁 속에 자유했다

- 나희덕,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갯지즈 강가에서」 전문.

---

31 나병철(2004),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p. 329.

위 시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갠지즈강’의 모습을 통해 여성성의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인도어로 갠지즈강은 힌두신들 중에서도 ‘너그러운 어머니 신’<sup>32</sup>을 의미한다. 작품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그대로 형상화되어, 여성성은 ‘밥’을 먹고 ‘아기’를 낳아 기르고, ‘시’를 쓰고 ‘버스’를 이용하는 일상적 삶의 공간이면서, 여성성을 상징하는 ‘양수’와 ‘자궁’ 속에서 인간은 남성 중심의 부정적 가치를 정화시키기 위한 의식으로서의 ‘몸’을 씻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즉, 여성성은 일상적 삶의 활동이 발원하고 지속되는 곳이며, 부정적 삶의 모순이 치유되는 터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궁’ 속에서 현실적 존재로서의 ‘사람’과 죽음으로서의 ‘시체’는 더 이상 이원화되어 분열되지 않고, 초월성을 획득함으로써 하나로 통합되게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개’도 자궁이라는 여성적 공간에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인간’과 ‘동물’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진리 속에 포섭되고 동화되어 하나의 본질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짓는 이원적 태도와 대결적 입장에서 벗어나, 남성을 여성적 영역 속으로 아우르는 공생적 가치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라캉 식으로 말하면, ‘결핍 없는 신화의 공간인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sup>33</sup>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의 이탈은 결핍과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인간은 본래적으로 끊임없이 자궁에 대한 회귀 본능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 작품에 내재된 여성적 가치의 본질은 ‘포용과 정화 그리고 치유’로 규정된다.

작품 속에 제시된 시어나 표현상의 특징을 토대로 여성적 가치관의 본질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학생 스스로 그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

32 양승운 외(2001), 『동남아 인도문화와 인도인사회』,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 35.

33 맹문재(2005), 『현대시의 성숙과 지향』, 소명출판, pp. 76~77.

금 사회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한 공감과 이해<sup>34</sup>를 유도함과 동시에 가치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다. 여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시 교육의 경우에는, ‘어머니 자연(Mother Nature)’<sup>35</sup> 즉, 모성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신화론적 사고를 형성하게 되며, 과학 중심의 합리적 사고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여성 중심의 신화론적 사고는 견제와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위 작품은 자궁이라는 모성성을 내포한 강을 통해, 여성의 본질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융화시키는 자연과 동일시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 페미니즘적 가치는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고 이들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남성적 가치관을 전복시키고자 함은 물론, 이러한 인식을 확장시켜 여성성 속에 남성을 공유<sup>36</sup>하고자 함으로써 화해와 치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성 우위의 현실 속에서 ‘몸’의 언어를 통한 사유방식의 확립과, 여성 자신의 몸을 통해 자연을 체화(體化)할 수 있는 감수성은 ‘생명의 비의(秘意)’<sup>37</sup>를 통찰하는 인식의 확장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성성이 가족이라는 폐쇄적 공간에 한정된 채 세계와의 고립성<sup>38</sup>을 한계로 드러내었다면, 위 작품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포용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화해를 위한 새로운 가치 설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재설정 가치’에 관한 교육요소는 작품의 가치 인식에 무조건적

34 백승란(2009), 「에코페미니즘 시교육의 효용성」, 『인문학연구』 제78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26.

35 마이클 짐머만, 정현경 외(1996),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대출판부, p. 220.

36 생태 과학자들은 한 체계 안에서의 지나친 상호의존은 생태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반론을 제기한다. 김옥동(1998),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p. 385.

37 이혜원(2008), 『생명의 거미줄』, 소명출판, pp.95~105.

38 구명숙(2010), 「김후란 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와 현실인식」, 『한국사상과문화』 제51호, 한국사상문화학회, p. 104.

인 동조와 소극적 수용의 자세로부터 학생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들의 가치관을 준거로 상대적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능동성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학생 자신의 가치 인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는 물론 작품 속 가치에 대한 발견과 인식적 공유,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재설정하고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I. 여성시 교육의 실제

타자성으로 소외된 여성적 현실을 여성시 교육의 현장에서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 본고에서는 ‘상황의 간접체험을 통한 공감적 읽기’를 수행해 보았다. 소외받는 여성의 현실적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유연한 태도로 그 실태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감상은 물론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여성의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긍정과 친교로서의 대화적 읽기’를 시도해 보았다. 여성의 주체성을 옹호하고 주체적 인식의 형성 과정을 탐색해 나가면서 작품에 내재화된 주체로서의 화자와 학생들이 상호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방점을 두고자 했다. 탈중심적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여성만의 새로운 자리 찾기를 위한 시도로 감행되는 여성적 가치 구현을 작품 속에서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치 재설정으로서의 치유적 읽기’<sup>39</sup>라는 방식을

39 여성시 교육요소로 설정한 ‘타자성’, ‘주체성’, ‘재설정적 탈중심성’을 교수학습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경험하는 모순적 현실에 대한 독자의 공감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도하는 자의식과 대안 제시가 현실 상황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성의 내면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실을 문제 상황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화자와 독자 사이의

활용하였다. 여성의 새로운 가치정립이 모순을 치유하고 변화와 상생을 주도하는 데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상황의 간접체험을 통한 공감적 읽기

타자적 여성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바탕으로 여성의 상황을 간접체험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느꼈을 정서에 공감<sup>40</sup>해 보고자 하는 것이 ‘공감적 읽기’ 단계의 교육적 의도이다. 여성의 타자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는 작품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여성의 현실에 대한 생생한 체험과 그들의 정서를 공유하는 체험을 하도록 유도해 보았다. 이를 위해 관심과 애착을 바탕으로 한 역할치환을 전제로 해서, 작품 속에 제시된 여성의 타자로서의 현실을 발견하게 하고 이를 학생들의 체험이라고 가정해 간접체험하는 활동을 해 보도록 했다.

‘작품 속에서 시적대상은 누구인가요?’, ‘시적대상이 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의 역할을 통해 여성의 현실을 규정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낱말을 떠올릴 수 있나요?’, ‘타자성 혹은 소외 등의 낱말을 떠올렸다면,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만약 자신이 작품 속 구자명 씨라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까요?’, ‘구자명 씨의 생각과 감정을 여성 일반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성들의 처지에 공감하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제시해 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반응과 활동을 유도해 보았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

거리 좁히기 위한 읽기 방법으로 ‘공감적 읽기’, ‘대화적 읽기’, ‘치유적 읽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40 메리 고든, 문희경 옮김(2010), 『공감의 뿌리』, 산티, p. 86.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 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레 저 십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 시중 든 시간이고  
 그레그레 저 십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 구자명,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전문.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은 최대한 수용을 하되, 최대한 시적대상의 상황  
 과 처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유발시키는 인물의 생각과 정서를 짐작하고  
 학생 자신과의 동일시를 통해 역할의 대리체험을 주문하였다. 또한 남성과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인물을 단순히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의도적인 몰입을 통해 여성의 타자성을 느끼고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그런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호소통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들려주고, 끝으로 짧은 형식의 글을 통해 간접체험의 결과를 마무리 짓게 하였다.

[학생글 1]<sup>41</sup>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구자명 씨는 여성이다. 맞벌이 부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시어이고, 아기 엄마라는 것은 일과 가정 둘을 동시에 감당해야 할을 나타낸다. 버스에 타자마자 조는 구자명 씨, 휴식시간 잠자는 시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라는 표현은 이러한 일상이 일 년 내내 반복됨을 상징한다. 아기에겐 젖 물린 시간, 시어머니에게 시중든 시간,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 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십 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의 여성적 공간에서 여성이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은, 여성의 희생으로 안식을 취하는 남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화자는 죽음의 잠을 향해 거부의 화살을 당김으로써 여성적 희생을 거부하려한다.

만약 내가 구자명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과연 이러한 지루함, 고통 속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피곤함이 쌓이고 쌓여 힘겨움이 극도가 된 느낌이 들 것 같다. 가사 일은 절대 여성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인식을 바꾸어 여성이 절대 수동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41 여학생을 피험자로 했을 때 보일 수 있는 여성 편향적 반응을 제거하고, 교육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여성적 처지와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적은 남학생을 실험집단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진주시내 인문계 고교의 남학생 1학년 37명을 상대로 교육활동을 전개한 후, 활동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학생글을 제시하되, 지면의 제약으로 몇 편의 글만 싣고자 한다.



[학생글 2]

버스에 오르자마자 즐기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 고단한 삶을 짐작할 수 있다. ‘부처님처럼 즐기고’라는 시어는 고단한 현실을 한껏 받아들이고 있는 소외된 모습을 보여 준다. 아기 돌보고, 시어머니 시중 들고, 남편 챙기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 잠잘 시간마저 없어 피곤해하는 힘겨운 구자명 씨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러나’라는 시어를 기점으로 해서 시상이 반전되고 있다. 이는 남성은 밖에서 돈을 벌고, 집안의 가사노동은 여성만 해야 한다는 편견에 대한 비판이다.

매일 반복된 일상과 가사노동으로 몸과 마음이 피로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항상 짐을 지듯이 삶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고독감에 젖어들 것이다. 지금의 여성적 현실을 통해 여성이 느끼는 남성에 대한 열등감, 비참함, 그리고 무시받는 느낌을 나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혹시나 남성 중심 사회로 인해 열등감을 여성이 느낀다면, 여성이 있기에 남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기를 권하고 싶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가사노동은 여성만 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가사노동을 남성도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생글 3]

‘준다’라는 시어와 ‘고단한 하루’와 같은 시어를 통해 인물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구자명 씨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희생을 거부하고 있다. 위 작품을 통해 화자는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희생을 ‘구자명 씨’를 통해 보여 주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맞벌이를 하고, 시어머니 약 시중을 들고, 남편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희생은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에 남성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희생은 부당하다고 본다. 며느리와 아내는 내가 보기에 ‘선택 가능한 위치’이기에 강요하기보다는 여성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생글 4]

현대사회에서 가부장제라는 명목 하에 여성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은 그 누구보다도 힘겹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여성 소외 현상에 대해 총체적인 관념에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고 싶다. 여성이 가부장제라는 현실 아래에서 힘겹게 나날을 이어가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을 자각하고 그 모순에 맞서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다. 남편, 자녀양육, 시댁살이와 같이 여성 입장에서 많은 책임과 노력을 요하는 경우, 인식의 변환으로 좀더 진취적인 여성평등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위의 글을 통해 학생들은 여성의 타자적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 간접체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작품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모든 시어의 연관성 파악을 통해 문맥적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개별 학생의 개성과 탐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시어들을 통해 여성적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작품의 내용 파악을 토대로 학생 자신의 정서를 진술함으로써, 여성의 소외적 현실과 절망감에 대한 동감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인식의 확장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작품 속 인물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동정과 연민은 간접체험과 공감하기가 가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아울러 학생들의 기존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안목으로 여성적 현실에 대해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은 본고에서 의도했던 여성의 타자성에 대한 체험과 그에 대한 공감이 여성시를 이해하는 요인이 됨을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작품에 반영된 상황 이외에 다양한 현실적 삶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여성적 타자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국면으로 발전하지는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학생들의 공감에 대한 절실함이 다소 피상적이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감에 대한 이유와 상황에 대한 동일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는다.

## 2. 긍정과 친교로서의 대화적 읽기

타자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의 자각과 인식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화적 읽기’를 시행해 보았다. 여성의 주체적 인식과정과 주체성의 의의, 그리고 주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실천적 의지에 관한 사항들을 탐색하기 위해, 인물의 인식과 적극적으로 상호소통을 하는 대화하기<sup>42</sup>를 해 보았다. 화자의 자기 인식의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주체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하게 하였다. 또한, 여성 화자가 체득한 자기 인식의 결과가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도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보게 하고, 작품에 드러난 여성적 주체성의 실천적 의지에 관한 사항도 살펴보도록 주문하였다.

‘화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작품 전반에 동일한가요?’, ‘화자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난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구체적인 시어를 연결짓고 전후 문맥을 고려해 가면서 시적 의미를 파악하고, 여기에 갖든 화자의 인식을 추론해 볼까요?’, ‘인식의 흐름과 절차를 통해 화자가 얻게 된 최종적 주체성은 어떻게 제시되나요?’,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해 볼까요?’, ‘화자가 얻은 혹은 추구하고자 하는 주체성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주체성은 의식적인 차원의 문제와 관련되지만, 그것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동반되어야 할까요?’, ‘여성 화자가 이러한 주체성을 추구하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화자의 의도 성취를 위해 주체성의 실천적 측면을 살펴볼까요?’, ‘실천적 의지와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화자의 주체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볼까요?’라는 질문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시의 주체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게 하였다.

---

42 여기에서의 대화하기는 작품 속 여성인물과 학생들 상호간의 정신적인 교감과 소통을 지칭하는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  
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  
잡초나 늪 속에서 나쁜 꿈을 꾸는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

어머니 나는 어둠이에요.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풀밭에서 일어난 어느 아침부터  
긴 몸뚱어리의 슬픔이에요.

밝은 거리에서 아이들은  
새처럼 지저귀며  
꽃처럼 피어나며  
햇빛 속에 저 눈부신 天性의 사람들  
저이들이 마시는 순순한 술은  
갈라진 이 허끝에는 맞지 않는구나.  
잡초나 늪 속에 온 몸을 사려감고  
내 슬픔의 毒이 전신에 발효하길 기다릴 뿐

벅속의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구하듯  
하늘 향해 몰래몰래 울면서  
나는 태양에서의 사악한 꿈을 꾸고 있다.

- 최승자, 「자화상」 전문.

학생들에게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제시하고, 학생 활동 후에 학생들을  
통해 그 교육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학생글 5]

처음엔 현재 여성이 갖고 있는 수동적인 자아위치를 인식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후에 가서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찾으려 갈망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 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라는 부분을 통해,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자아를 살펴 볼 수 있고, '저들이 마시는 술은 갈라진 이 혀끝에는 맞지 않는구나.'라는 곳은 남성의 권한에 비해 여성들의 권한이 한없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개방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다.

처음엔 자신의 고립된 존재로서의 위치에 실망하고 남성들의 공간을 부러워하지만, 후에 가서는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금까지 억압되었던 여성들의 주체성이 오랜 인내의 시간을 견뎌 여성들의 공간이 생기려고 함을 직감할 수 있다. 남성은 오랫동안 여성의 주체성을 억압해 왔던 관례에서 벗어나 여성을 위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여성들 또한 그 억압을 견뎌내기 위한 인식과 행위를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

[학생글 6]

화자는 여성으로서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처음에는 자신을 어둠의 자손이라거나 뱀과 비유하는 등, 아주 비관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점점 자신의 처지를 인내로 참아가면서 여자가 사회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늘 향해 몰래몰래 울면서 나는 태양에서의 사악한 꿈을 꾸고 있다.'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다.

여자들은 예로부터 최근까지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 받아 왔는데, 이제는 그런 고지식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은 자신이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은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자만하고 여자들을 깔볼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글 7]

이 시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인식적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시어는 '어둠'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뱀'으로 볼 수 있다. 어둠과 뱀은 부정적이고 배척당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억압과 배척을 의미한다.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이란 구절로 화자 자신의 처지가 좋지 않고 부정적임을 나타내고 있고, '내 슬픔의 독이 전신에 발효되길 기다릴 뿐'이라는 구절을 통해 그저 인내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궁극적인 주체성은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억압되고 배척당함을 근절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여성이란 존재를 자조적으로 표현하다가, 끝 부분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주체적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

학생글을 보면, 학생들은 시어를 통해 부정적 현실이 강요되는 타자적 현실에 대한 여성의 자기 인식과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성의 독자적인 주체적 인식의 확립 과정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자의식을 통한 주체성 인식이라는 교육요소 설정과 이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대화적 읽기가 갖는 교육적 의의는 충분하리라 본다.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비관적이고 소외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여성적 처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읽어 내고 있다. 또한 부정적 자기 인식에 함몰되지 않고 의식의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 긍정과 희망을 잉태하는 여성의 주체성 확립의 과정도 이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체성이 갖는 의미를 학생들의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확보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주체성이 남성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유의미함을 역설하기도 하고 여성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임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체성이 현실 개혁을 위한 적극성을 함유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실천적 의지와 관련된 측면에 대한 학생들의 탐색은 지극히 소극적이라

고 볼 수 있다. 물론 작품 속 화자의 실천의식이 미약한 탓도 있겠으나, 그럴 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논의가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차원에 머문 것은 한계로 지적할 만하다. 또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통한 주체성의 확립성 여부를 학생들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 화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주체성의 명확한 실체에 대한 탐색이 모호하거나 피상적인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 3. 가치 재설정으로서의 치유적 읽기

여성시에 드러난 여성적 가치 즉, 그들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을 재설정하기 위해 여성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제시된 ‘가치’<sup>43</sup>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치유적 읽기’를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았다. 문제적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여성적 가치의 본질이 학생의 눈높이에서 판단했을 때 합리성과 의미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의 현실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학생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치유적 읽기’에서는 작품을 통해 화자가 제기하는 현실 극복 가능성으로서의 가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학생 스스로 찾아보게 하고, 그 가치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시어들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발견한 여성적 가치를 학생들의 가치관에 비추어 과연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모순점과 한계는 없는지, 실현성은 있는지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 평가하도록 주문하였다. 본고에서는 「소풍」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전개해 보았다.

‘제시된 작품을 자연성을 긍정하는 생태시가 아닌 다른 의도로 읽을 수 있을까요?’,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읽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성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작품을 감상한다면, 어떤 여성의 모습을 발

43 남궁달화(1994), 『가치탐구 교육론』, 철학과현실사, p. 244; 장정렬(2000), 『생태주의의 시학』, 한국문화사, p. 230.

견할 수 있나요?’, ‘여성의 희생성 혹은 모성적 가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왜 화자는 희생과 억압을 강요하는 남성을 비난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을까요?’, ‘여성은 남성을 어떤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이러한 태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화자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화해와 공존의 가치가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판단은 어떠한가요?’, ‘남성적 가치 중심의 사회를 근절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대안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학생 개별 활동과 상호간의 토의를 통해 여성적 가치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애들아, 소풍가자.  
해 지는 들판으로 나가  
넓은 바위에 상을 차리자꾸나.  
붉은 노을에 밥 말아 먹고  
빈 밥그릇에 별도 달도 놀러오게 하자.  
살면서 잊지 못할 몇 개의 밥상을 받았던 내가  
이제는 그런 밥상을  
너희에게 차려줄 때가 되었나보다.  
가자, 애들아, 저 들판으로 가자.  
오갈 데 없이 서러운 마음은  
정육점에 들러 고기 한 근을 사고  
그걸 싸서 입에 넣어줄 채소도 뜯어왔단다.  
한 잎 한 잎 뜯을 때마다  
비명처럼 흰 진액이 배어 나왔지.  
그리고 이 포도주가 왜 이리 붉은지 아니?  
그건 대지가 흘린 땀으로 바닷물이 짠 것처럼  
엄마가 흘린 피를 한 방울씩 모은 거란다.



그러니 애들아, 꼭꼭 씹어 삼켜라.  
 그게 엄마의 안창살이라는 걸 몰라도 좋으니,  
 오늘은 하루살이떼처럼 잉잉거리며 먹자.  
 언젠가 오랜 되새김질 끝에  
 네가 먹고 자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너도 네 몸으로 밥상을 차릴 때가 되었다는 뜻이란다.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저 노을빛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이 바위에 둘러앉아 먹는 밥을  
 잊지 말아라, 그 기억만이 네 허기를 달래줄 것이기에.

- 나희덕, 「소풍」 전문.

작품에 대한 불필요하고 방만한 해석과 감상을 막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작품을 파악하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작품에 숨어 있는 ‘가치’에 주목하고 이러한 가치가 ‘치유’의 기능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였다. 학생활동 후에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게 하고, 글의 분석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 [학생글 8]

채소의 진액, 포도주의 색을 엄마의 피라고 한 것. 엄마의 안창살을 먹인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으로부터 나온 양식이자 엄마의 따뜻한 모성과도 같다고 묘사한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밥상을 먹었던 기억이 여성의 회생적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남성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기억을 이해하는 남성이 여성과 공존하며 살게 된다는 의미를 작품은 담고 있다.

예로부터 남성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서 그 관념이 남아 있기에 아직은 남성이 우월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현대에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협력하는 일이 많기에 앞으로 이런 고정관념은 없어질 것이라 믿는다. 나 역시도 현대에

는 남녀가 공존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조화의 가치만이 갖는 긍정적인 면은 남녀 간의 차별을 없앤다는 점에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더 발전하게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역할 분담할 때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기에 상호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글 9]

작품에는 피와 안창살을 통해 여성의 희생을 암시하며, 그것을 당연시하지 말고 남성을 위해 자기 한 몸을 버릴 수 있는 여성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바위에 둘러 앉아 먹는 밥을 잊지 말아라.’라는 구절에 담겨 있다. 남성이 여성의 희생과 포용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형상화되어 있다. 내 생각에 남성이 무조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한 여성도 남성에게 무작정 자신을 베푸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남성이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여성은 남성을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그 희생을 인정함으로써 극복해 나가고자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밖에 될 수 없다.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여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무엇을 도움 받을까?’보다 여성에게 ‘무슨 도움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공존이 바람직하다.

[학생글 10]

이 시에서 채소는 진액이 나오고 포도주는 엄마의 피, 그리고 안창살은 엄마의 살을 의미하면서 여성들의 희생을 보여 준다. ‘되새김질’은 계속해서 씹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는 오랜 시간 후 여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네가 먹고 자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너도 내 몸으로 밥상을 차릴 때가 되었다는 뜻이란다.’라는 구절은 이제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스스로 밥상을 차리면서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남성은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드주는 존재로,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하였으나, 위 작품에서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남성이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보다 이해해 줌으로써 공존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제시된 작품에서 ‘조화와 공존’의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시어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인식과 논리를 접목시켜 나름대로 화자의 지향적 가치의 본질이 남성과의 화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존의 가치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으로 ‘책임의 소재에 대한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호간의 의도적 합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작품에 형상화된 여성적 가치의 본질에 대한 파악은 물론 그 가치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학생들은 남성 중심 가치에 대한 비판을 초월한 공존적 가치의 의미를 발견함은 물론, 공존 지향적 가치가 여성에게 강요되는 희생의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대안이 됨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여성적 가치의 본질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도한 대안적 읽기가 작품에 대한 의미 분석은 물론 학생들의 내면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시된 작품이 여성을 중심에 위치시키고 이를 토대로 여성의 범주 안에 남성을 수용함으로써, 여성 중심의 남성 포용적 가치 인식이 전제 되어 있음은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작품에 드러난 공존적 가치는 상대의 희생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공존성을 사회적 가치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해야 함에도 학생들은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가치관을 토대로 작품 속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에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학생 자신들의 목소리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존’의 가치를 평가하기를 기대했으나 학생들의 독특한 입장 표명이 미흡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IV. 마무리

본고에서는 여성시를 통해 남성 편향적인 문학관과 그에 입각한 문학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시 교육의 의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남성 중심의 문학교육관이 갖는 여성 소외적 현실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가치관의 편향성과 인간존엄성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시에 내재된 여성적 삶에 주목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여성시를 탐색하게 함으로써 여성이 주체로서의 자기 존중감과 여성의 자발적인 인식의 확립, 그리고 의지적 행위를 부정하는 타자적 현실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여성시에 형상화된 여성 자아의 고뇌와 억압적 상황을 학생들이 간접체험함으로써 현실상황의 모순을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인식과 노력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교육활동이었다.

여성의 타자적 현실에 대한 탐색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여성의 주체적 인식이 여성의 내면에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그러한 주체성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여성시를 통한 주체성의 확립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에게 주체성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가한다. 개별 존재가 자발적으로, 직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는 적극적인 의식화 과정으로서의 주체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주체성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됨을 깨닫게 하는 데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의 자신에 대한 긍정과 애착이 적극적인 자의식의 탐색에서 유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확립된 주체성은 남성과 대등한 자격으로서의 여성적 위치를 확립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작품 속에 구현된 여성적 가치에 대한 탐색은 남성 중심적 현실과 그로부터 기인한 편향적 문학관을 척결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생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 스스로 제기하는 현실 극복을 위한 대안적 가치를 작품을 통해 체험하고, 그 속에 전제된 가치의 본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 가치관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 본 논문은 2012.10.22. 투고되었으며, 2012.11.11. 심사가 시작되어 2012.11.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구명숙(2005), 「여성주의 시의 교육」, 『한국사상과문화』 제27호, 한국사상문화학회, p. 10.
- \_\_\_\_\_(2010), 「김후란 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와 현실인식」, 『한국사상과문화』 제51호, 한국사상문화학회, p. 104.
- 권택영(1990), 『후기구조주의 문학론』, 민음사, p. 120.
- \_\_\_\_\_(1998), 『프로이트의 성과 권력』, 문예출판사, p. 57.
- 김문주(2011), 「고정희 시의 종교적 영성과 어머니 하느님」, 『비교한국학』 제19권 2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 139.
- 김상환 외(2002), 『라캉의 재생산』, 창작과비평사, p. 579.
- 김성근(2005), 『21세기 문예이론』, 문학사상, p. 95.
- 김승희(2011), 「고정희 시의 카니발적 상상력과 다성적 발화의 양식」, 『비교한국학』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p. 11~12.
- 김옥동(1998),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p. 385.
- 김춘섭 외(2004), 『문학이론의 경계와 지평』, 한국문화사, pp. 360~361.
- 나병철(2004),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p. 329.
- 남궁달화(1994), 『가치탐구 교육론』, 철학과현실사, p. 244.
- 남민우(2001), 「여성시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 『문학교육학』 제1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p. 356.
- 남진숙(2010), 「몸을 통한 불교 에코페미니즘 시 읽기」, 『문학사학철학』 제23호, 한국불교사연구소, p. 33.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2002), 『한국문학과 여성』, 아세아문화사, pp. 39~50.
- 레나 린트 호프, 이란표 옮김(1998), 『페미니즘 문학 이론』, 인간사랑, pp. 45~97.
-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1996),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p. 110.
- 뤼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옮김(2000),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p. 107.
- 마이클 짐머만, 정현경 외 옮김(1996), 『다시 꾸며보는 세상』, 이화여대출판부, p. 220.
- 맹문재(2005), 『현대시의 성숙과 지향』, 소명출판, pp. 76~77.
- 명혜영(2010), 『한일 근대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변용』, 제이앤씨, pp. 104.
- 메리 고든, 문희경 옮김(2010), 『공감의 뿌리』, 산터, p. 86.
- 문학이론연구회(1994), 『새로운 문학 이론의 흐름』, 문학과지성사, pp. 290.
- 민족문학사연구소(2004),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p. 413.
-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2006),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pp. 375.
- 박아청(2003), 『정체감 연구의 전망과 과제』, 학지사, p. 341.
- 백승란(2009), 「에코페미니즘 시교육의 효용성」, 『인문학연구』 제78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 126.
- 백은주(2007), 「1990년대 한국 여성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으로서의 성」,

-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p. 278.
- 양승운 외(2001), 『동남아 인도문화와 인도인사회』,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p. 35.
- 여성문화이론연구소(2003),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p. 192.
- 이경수(2011), 「고정희 전기시에 나타난 숭고와 그 의미」, 『비교한국학』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 92.
- 이상경(2002),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p. 165.
- 이소영 외(1995),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p. 273.
- 이정희(2003), 『여성의 글쓰기, 그 차이의 서사』, 예림기획, p. 133.
- 이혜원(2008), 『생명의 거미줄』, 소명출판, pp. 95~105.
- 이화어문학회(2001), 『우리 문학의 여성성·남성성』, 월인, pp. 31~32.
- 일레인 쇼윌터, 신경숙 외 옮김(2006),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330.
- 임영선(2010), 「한국 여성시 비교연구」, 『문명연지』 제25호, 한국문명학회, p. 171.
- 장정렬(2000), 『생태주의 시학』, 한국문화사, p. 230.
- 정끝별(2001),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제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p. 312.
- 정영자(2003), 「1960년대 한국여성시 문학사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2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 65.
- 줄리아 크리스테바 외, 김열규 외(1992),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p. 94.
- 진은진(2008),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연구』, 보고사, pp. 211~212.
- 차경아 외(2004), 『문학이 만든 여성 여성이 만든 문학』, 한국문화사, pp. 202~203.
- 채연숙(2011), 「문화적 기억과 문학적 기억으로서의 여성시」, 『비교한국학』 제19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p. 162.
- 최동현 외(1996), 『페미니즘 문학론』, 한국문화사, p. 18.
- 태혜숙(2006),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학과학사, p. 181.
- 토릴 모이, 임옥희 외 옮김(1994),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p. 128.
- 팸 모리스, 강희원 옮김(1997),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p. 53.
- 한국어문화연구소(2011), 『여성, 문학으로 소통하다』, 태학사, p. 22.
- 한국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2000),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p. 158.
- 한스 요아힘 마츠, 이미옥 옮김(2004), 『릴리스 콤플렉스』, 참술, p. 24.

## 주체성 인식으로서의 여성시 교육 방법

오정훈

본고에서는 여성시 탐색의 의의를 전제하고 남성적 권위에 의해 소외되는 여성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남성에 의해 여성의 주체성이 망각되고 그 자리를 타자성이 자리하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이러한 모순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여성적 주체성의 의미를 구체적 작품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여성이 제기하는 공존의 가치가 남성에 대한 비판과 이를 통해 고착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소외와 억압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이 됨을 살펴보았다. 여성시와 관련된 타자성, 주체성, 가치성의 교육적 요소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적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 줌은 물론 인간존중의 이상적 가치를 긍정하게 하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학생들은 여성시 교육을 통해 자기 주체성의 확립이 갖는 의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치 탐색을 위한 실천적 의지를 다져 나가게 될 것이다.

핵심어 여성시, 공존, 타자성, 주체성, 가치, 인간존중, 남성적 권위



## ABSTRACT

# Teaching Method of Women's Poetry as Independence Perception

Oh, Jeong-hun

This paper is aimed at realizing the feminine value which is excluded by masculine authority on the premise of the significance in women's poetry. In other words, this paper seriously desires to explore the meaning of feminine independence through actual works in order to criticize the negative reality where women's independence is forgotten by men, and otherness occupies the place for feminine independence, and to overcome such contradictory reality. In addition, this paper looked into the possibility that the value of co-existence raised by women could be an alternative which surmounts the criticism over men and the evils of the other alienation and suppression that might become permanent through the negative attitude towards men. It is hoped that the educational elements, such as otherness, independence, and value related to women's poetry will help students not only to widen the horizon of literary perception but they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students to accept the ideal value of respect for human beings. Further, hopefully, students will perceive the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self-independence through the education of women's poetry, and firm up their practical will to search for value that could aggressively improve reality.

**KEYWORDS** Women's Poetry, Co-existence, Otherness, Independence, Value, Respect for Human beings, Masculine Authority